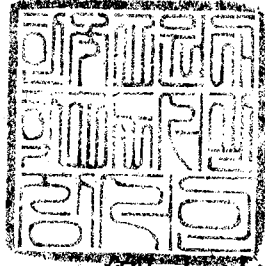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鄉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學習方法

- 濟州島地域을 中心으로 -

The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 Centering on the Che-ju Do District -



E000145933

145933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歷史敎育專攻

高 孝 叔

1993년 12월

91829069

郷土史學習의 内容組織과 學習方法

- 濟州島地域을 中心으로 -

The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 Centering on the Che-ju Do District -

指導教授 金 項 勾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歷 史 敎 育 專 攻

高 孝 叔

1993년 12월

高 孝 叔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1993년 12월

目 次

國文章錄.....	iii
第 I 章. 序 論	1
第 1 節 問題의 提起	1
第 2 節 研究의 目的	3
第 3 節 研究의 方法	5
第 4 節 研究의 動向과 課題	6
第 II 章. 鄉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方法	9
第 1 節 學習內容의 選定條件과 組織方法	9
1. 學習內容 選定條件.....	9
2. 學習內容 組織方法	11
第 2 節 濟州島 鄉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13
1. 教科書에 의한 鄉土史學習 內容組織	13
2. 分散的 接近에 의한 濟州島 鄉土史學習 內容組織	15
3. 主題的 接近에 의한 濟州島 鄉土史學習 內容組織	21
第 3 節 學習方法과 指導過程	30
1. 學習方法.....	30
2. 指導過程	34
第 III 章. 濟州島 鄉土史學習의	
實施.....	38
第 1 節 鄉土史學習의 準備	38

1. 郷土史學習의 與件	38
2. 郷土史學習의 豫備	40
第 2 節 郷土史學習의 實際	42
1. 視聽覺 討議學習 事例：濟州島의 生活遺物	42
2. 史料學習 및 構案學習 事例：濟州島의 歷史	48
3. 劇化學習 事例：濟州島의 細花理 潛女抗爭	53
4. 現場學習 事例：濟州島의 遺蹟地.....	58
第 3 節 郷土史學習의 結果	60
 第 IV 章. 結 論	63
 參考文獻	65
 ABSTRACT	68

국 문 초 록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방법

-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

고 호 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 김 항 구)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향토사학습은 최근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향토사학습은 방법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역사 탐구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향토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족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습이다.

향토사학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을 토대로 향토사학습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과 향토사학습을 위한 지도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토사학습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우선 현행 교과서의 향토사 학습내용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뒤 분산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에 의해 각각 제주도 향토사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하였는데 특히 주제적 접

근에 의해 1)제주도의 역사, 2)제주도 상고시대의 용담동 유물, 3)제주인의 생활유물, 4)세화리 잠녀항쟁, 5)제주도의 인물이 선정, 6) 제주도의 유적 오현단이 조직되었다.

주제적 접근에 의해 선정, 조직된 학습내용에 대하여 7단계의 향토사학습 지도과정 모델을 토대로 제주도 향토사학습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이 구사되었다. 특히 1)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료를 이용한 구안학습이 이루어졌고 2)제주도의 생활유물에 대해서는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토의학습이 3)제주도 세화리의 잠녀항쟁에 대해서는 사료를 이용한 극화학습이 4)제주도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이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실시되었고 결과 향토사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향토사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과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이 동료교사들과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학습 방법에 관한 지속적이고도 능률적인 연구가 진작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1993년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第 I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최근 歴史敎育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 자체를敎育하는 한편 역사로써 인간을敎育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역사敎育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식과敎育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사 학습과의 연계, 학생중심의 주체적 학습, 자기인식의 학습¹⁾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郷土史²⁾ 學習은 그러한 역사敎育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양상이다.

역사를敎育한다 함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와 「역사로써 가르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이는 역사敎育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바르게 인식함과 더불어 역사적 방법에 대한 제반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역사敎育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의 하나가 바로 郷土史學習³⁾인 것이다.

이른바 향토사학습이란 방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내에서 역사 탐구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향토사를 중심으로 향토사와 민족사 전체의 문제를 연관하여 성찰하는 학습으로 향토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

1) 小關洋治 編, 「身近な地域の歴史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3』, 明治圖書, 1990, pp. 9-10.

2) Local History는 일반적으로 地方史, 郷土史 등으로 번역되는데 향토사라는 말에는 연구자가 살아온 자기 고향의 역사라는 애향적 의미가 깔려있고 지방사에는 애향적인 것보다는 일정한 지역의 역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연구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명식, “지방사연구의 역사와 개황”, 『대구사학』, 제30집, 대구사학회, 1986. 또는 Finberg and Skipp (ed.), *Local History : Objective and Pursuit* (David & Charles, 1967), 참조.

3) 본 논문에서의 郷土史學習이란 郷土史 資料의 이용을 통한 歴史學習을 뜻하는 것으로 학생이 중심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족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습이다⁴⁾

일반적으로 향토사는 민족의 역사가 축소된 것이며 국가사의 일부분이기에 국가사 이해에 유용한 접근방식을 마련해 주는 이른바 국가사의 보조학문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사는 국가사의 보조적 역할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歷史教育的 意義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향토사를 국가사의 일부나 보조학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⁵⁾

따라서 향토사 연구는 중앙지향, 권력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향토사회의 주체인 민중의 역사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정치사 중심에서 문화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하겠다. 대체적으로 향토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경향 변화⁶⁾에 염두를 두면서 전체 민족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어왔고, 이에 따른 민중의 생활상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향토사학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현행 5차 교육과정의 國史科에서는 「향토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향토애호 및 문화존중의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향토사학습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⁷⁾ 특히 민족사교육을 위해 주변의 친숙한 교재인 향토사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향토사학습은 1995년도 시행 예정인 6차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향토사학습이 지니는 많은 장점과 교육과정상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4)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p. 10.

5) 李元淳외, 『歷史教育論』, 三英社, 1983, pp. 291-292.

H.P.R.Finberg, 'Local History', in Finberg and Skipp (ed.), *Local History : Objective and Pursuit* (David & Charles, 1967), pp. 25-33.

6) 현대 역사학의 흐름은 주명철,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韓國史市民講座』 8집, 一潮閣, 1991. 참조.

7) 교육부,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1993, pp. 5-6.

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향토사학습은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의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⁸⁾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과 입시교육 등의 교육제도 운영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들 수 있다. 향토사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료 또한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향토사학습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과 자료의 부족, 지도방법의 미숙, 수업진도의 차질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향토사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향토사학습이 역사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지도과정 및 절차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토사 연구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향토사 교육자료의 개발과 향토사학습 지도방법의 개발·보급 등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第 2 節 研究의 目的

일반적으로 향토사학습은 민족사 학습과의 連繫, 학생중심의 주체적인 학습, 자기인식의 출발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중앙 중심의 교육과정에 익숙한 학생들은 민족사의 특정내용을 자신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주변의 친숙한 자료를 이용하는 향토사학습은 학생들에게 역사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속에 실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그들의 지적·감성적 분위기에 맞는 민족사교육을 가능케 한다.

8) 敎育課程의 地域化란 교육과정의 제정이나 결정을 지역이 책임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그 권한을 지역단위 교육청이나 학교급별 단위 학교에서 담당하는 적극적인 방안과 국가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소극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민족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에서 결정하고 향토사 부분은 해당 교육청 단위로 결정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효과적이다.

또한 향토사학습은 주변의 향토사료를 매개로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학생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 또 향토의 先人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을 가꾸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향토사학습은 향토의 역사적 事象을 통한 자기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토에 대한 긍지를 갖게하며 향토와 민족사회 나아가 세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같은 향토사학습의 의의는 적어도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역사적인 견해와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역사교육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려면 우선 역사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이해시켜야 하며 그리고 학습내용을 정선하고 학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향토사학습의 경우는 향토교재를 활용하여 역사를 가까이에서 실감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학습형태를 경험케 함으로써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활동케 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고, 해보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⁹⁾

따라서 향토사학습의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흥미와 관심의 증대」라는 맥락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을 토대로 향토사학습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과 향토사학습을 위한 지도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사학습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내용선정 조직의 유형과 수업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반 선행연구¹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9) 小關洋治 編, 「世界史的背景を踏まえた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1』, 明治圖書, 1990, pp. 68-78.

10) 선행연구 가운데 향토사학습과 관련하여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김연성, 「향토사의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류순룡, 「향토사료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의 함양」, 한국교총연구논문, 1991.

宋春永, 「歷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歷史教育論集』, 第13・14合輯, 歷史教育學會, 1990.

첫째, 제주도 향토사학습 내용을 분산적 접근방법과 주제적 접근방법¹¹⁾에 의해 조직해 보았으며

둘째, 특히 주제적 접근방법에 의해 조직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제반 학습방법들을 모색해 보았다.

셋째, 제주도 향토사학습을 직접 실행하여 지도과정 및 절차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보았으며

넷째, 향토사학습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토사학습의 효과와 문제점, 전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사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학습방법을 모색해보는 이론적인 작업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향토사학습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작업을 병행하였다.

第 3 節 研究의 方法

향토사학습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선별하고 학습방법의 구안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제주도 관련된 제반 향토사 문헌¹²⁾들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향토사 문헌에

이성세, “향토사료의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의 함양”, 『대구교육』 5, 1984.

임종선, 「향토사 조사활동을 통한 애향심 함양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회 현장연구논문, 1981.

鄭丞惠, 「中學校 國史敎科에서의 郷土史 學習方案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향토사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11) 이에 대해서는 第II章 郷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方法, 第1節의 2. 學習內容 組織方法 편에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宋春永, 「國史敎育에 있어서 郷土史 敎材의 指導方案」, 참조.

12) 濟州道敎育委員會, 『耽羅文獻集』, 信一印刷社, 1976.

대한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 지역사회의 삶과 관련이 있는 내용, 조사·관찰이 비교적 쉬운 내용, 지역적 특색이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는 원칙 아래 실제 수업에 적절한 향토사학습 주제들을 선별하는 방식의 문헌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토사학습의 지도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된 학습주제들을 가지고 교실현장에서 직접 향토사학습을 실행하였다. 실제 학습활동은 주체적인 학습활동, 집단 속에서 가능한 학습활동,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학습활동, 시간적으로 보장된 학습활동이라는 원칙 아래 구성이 되었다. 특히 「배우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교수법의 추세¹³⁾에 비추어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재를 작성해보는 제반 실천적인 방법이 활용되었다.

끝으로 실행된 향토사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설문지에 의한 통계적 평가 방법 보다는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평가를 하거나 혹은 학습종료시 학생들로 하여금 감상문을 쓰게 하거나 학생들의 앙케이트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계적 방법이 객관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평가 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반응을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별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

第 4 節 研究의 動向과 課題

-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76.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金宗業, 『耽羅文化社』, 조약돌, 1986.
 金奉玉, 『濟州通史』, 濟州文化, 1987.
 梁鎮健, 『濟州教育行政史』, 濟州文化, 1991.
 耽羅文化叢書 3, 『耽羅錄』,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叢書 4, 『耽羅誌草本』,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叢書 5, 『耽羅誌』,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3) 金學守, 『現代教授-學習論』, 教育科學社, 1990, pp. 34-48.
 Richard I. Arends, *Learning to Teach*, NewYork : Random House, 1988,
 pp. 4-35.

역사학의 연구는 역사교사의 본래적 사명인 현장교육 담당자로서의 기능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역사교사들은 능력과 시간에 견주어 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특히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서 향토사 관계의 연구가 권장되고 있다. 교사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러한 현장연구는 이론연구와 달리 실천을 위한 교과교육적 연구임으로 현장연구의 소재는 역사교육의 현장 담당자인 역사교사들이 매일 전개하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향토사학습을 위한 기초 연구가 역사교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앞으로 개인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동료교사와 전공을 살려가는 협동연구나 향토사가와의 제휴에 의한 연구도 진척될 것이다. 최근 일부 역사교사들이 교과연구모임을 통해 현장과 직결된 교과연구를 진행시키며 교과의 현장정보를 교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¹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교사들의 현장연구를 조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짐들이다. 현장연구의 목적이 교육실천의 개선에 있음¹⁵⁾을 환기시켜 주는 매우 주목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류의 교과연구는 그 규모나 내용이 비교적 내실이 있으며 특히 각종 학교급별로, 교과별로 『수업개혁사례집』¹⁶⁾을 발간하여 교과의 정보를 배포, 교환함으로써 교과연구의 현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 방면에 참고적이다.

향토사학습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교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교과이론적인 정리도 미진하며 현장과의 관련 또한 소원한게 현실이다. 그러나 향토사학습은 그 전제가 되고 있는 향토사연구가 진척되고 있으

14)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는 『역사교육』 1,2집(푸른나무, 1990, 1991)을 편찬하여 현장교육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특히 책의 말미에 실린 각종 현장연구에 대한 정보는 그 가치가 크다.

15) 이원순외, 앞의 책, pp. 307-311.

16) 明治圖書에서는 중학교 각 과목 『수업개혁사례집』을 편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個に應じた社會科の授業展開』(條原昭雄編, 1987)와 『新學習指導要領 中學校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1-6』시리즈 등이 참고적이다.

며 또한 교과이론 차원에서도 세련화되고 있으며 6차교육과정 등에서 실제의 향토사학습 시행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척을 바탕으로 현장의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당면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제주도의 향토사학습은 매우 부진한 현실이며 필요성도 크게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제주도의 향토사에 관한 업적은 비교적 튼실하기 때문에 향토사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은 완비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조건들을 학습내용 차원에서 조직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지역의 향토사학습을 위한 이론적인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교과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장성 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실제 학습활동 연구의 촉진이야말로 제주도지역 향토사학습의 과제이다.

第II章 郷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方法

第1節 學習內容의 選定條件과 組織方法

1. 學習內容 選定條件

향토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인간행동과 사상이 남긴 흔적의 총체이며 향토의 변천과정 속에서 고향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諸활동의 잔존물이다. 따라서 향토사료는 향토의 과거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역사적 교재인 것이다. 이러한 향토사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토사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郷土史料¹⁷⁾는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대개가 일상의 두터운 층에 숨겨져 있어 교사는 그 층을 제거하고 실제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평소 향토사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수업현장에서 끌어들이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학습내용으로 적절한 향토사료 선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수되어야 할 조건¹⁸⁾이 있다.

17) 향토사료의 분류는 다양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있고 송춘영은 ①물질적 자료(물리적 자료), ②제도적 자료, ③무형적 자료(심리적 자료), ④인물자료, ⑤산업경제적 자료로 분류하였다. (宋春永, “歷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教材의 指導方案”, pp.19-20.) 또한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1988)에서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민속자료, ④사적, ⑤인물로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18) 宋春永, 위의 논문, p. 21.

1.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도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목표성)
2. 학습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성)
3.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단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능력과 발달성)
4. 역사가에 의하여 가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 것을 선정해야 한다. (가치와 신빙성)
5. 시기와 작가,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근원성)
6. 문헌이나 문서자료는 번역된 권위있는 단행본이나 문고판을 선정하되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확성)
7. 문헌이나 문서자료 외에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과학적 자료도 선정하여야 한다. (다양성)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향토사학습 내용선정은 향토의 전 시대, 전 분야를 망라한 역사학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향토의 특색에 맞추어 가장 유용한 시대나 사상을 택하여 실시함이 좋다. 또한 유명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有形, 無形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상이나 향토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역사적 경관, 그리고 향토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의 뿌리인 생활문화 - 의식주·신앙·노동·연중행사 - 전반을 대상으로 함이 유용하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의 발달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학습내용은 향토의 문화재 등 구체적인 것, 구체적 事象을 택해야 한다. 특히 의식주나 제례 등의 의식, 연중행사 등의 생활문화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동의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사상의 나열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밑에 흐르는 인간생활이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이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¹⁹⁾

그리고 향토의 역사적 事象은 향토마다 특색을 갖고 있는데 이는 풍토적

19) 小關洋治編, 「身近な地域の歴史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3』, 明治圖書, 1990, pp. 16-17.

조건²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풍토적 조건을 학습내용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확고한 郷土認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양면을 고려한 내용이 효과적이다.

향토의 역사적 事象중에는 이미 소멸하여 오늘날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시대를 초월하여 향토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향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인문과학의 성과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2. 學習內容 組織方法

선정된 향토사료를 바탕으로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分散的 接近과 主題的 接近²¹⁾이 있다. 전자가 전체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토사를 조직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향토사를 직접 학습대상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전체사의 이해를 가능하도록 향토사를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적 접근방법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통사 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향토적 사례들을 예증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시 수업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향토사료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수업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향토사료의 활용이 가능하며 교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 심화시킬 수 있다. 즉, 국사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어떤 발전의 실패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토사학습이 소개되는 것이 된다.²²⁾

이 방법은 교사가 흔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고

20) 향토의 풍토적 조건 즉,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아날학과 브로델의 시간개념 중 장기지속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 역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필요불가결의 요인인 것이다. 나종일, "브로델의 전체사",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1992. 참조.

21) 宋春永, '國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p. 24.

22) R. Douch, *Local History and the Teacher*,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1, p. 120.

전통적인 종래의 국사 교수요목의 틀 속에서도 무난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심화할 뿐 향토적 증거를 통한 탐구 능력의 신장이라는 향토사학습의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성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주제적 접근방법은 학습내용을 선정하게 될때 향토사의 주제를 하나의 독립적인 단원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향토사 교재로써 전체사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토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사실을 전체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바르게 파악하는 한편 향토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은 향토사료를 통해 향토사의 인식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지만 향토사 단위 설정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향토사료를 수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그리고 향토사가 전체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밖의 조직방법으로는 聯關的 方法, 典型的 方法, 特設的 方法²³⁾을 들 수 있다. 연관적 방법은 분산적 접근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체사 학습과정에서 향토사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며, 전형적 방법은 전체사의 단면을 향토사의 구체적인 예로써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으로 분산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의 혼합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설적 방법은 주제적 접근과 유사한 방법으로 향토사를 직접 학습내용으로 조직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내용 조직방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다. 향토학습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교과서 단위마다 따로 지역화 항목을 추가해 넣는 방법과 독립된 단원으로 지역화 단원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분산적 내용조직과 관련되며 후자의 방법은 주제적 내용조직과 관련된다. 전자의 방안은 교과서의 제작 기술상 실현이 어려

23) 小關洋治編, 「生活に根ざした文化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5』, 明治圖書, 1990, pp. 20-21.

우며 후자의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따라서 주제적 내용조직이 효과적인 향토사학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第 2 節 濟州島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제주도 향토사학습을 위해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 즉, 제주도의 역사는 다른 지방과 달리 특수한 성격이 많기는 하지만 향토사학습의 내용은 지나치게 제주도의 특수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민족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늘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주도 향토사학습의 내용은 제주도 문화의 특징인 도서문화성, 서민문화성, 고유문화성²⁴⁾이 내재되어 있는 생활양식을 고려한 생활사·문화사 중심의 학습이어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과연 분산적 접근을 통한 내용 조직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리고 주제적 접근은 또한 어떤지를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참고적으로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향토사 학습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교과서에 의한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현행 중학교 국사과 교과서(상, 하)에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향토사 학습내용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다만 유적지도 등에 한반도 전체 상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맥락에서 제주도가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이 역시 특정 내용에만 한정되고 있다.

24) 濟州島는 도서라는 지리적 풍토적 조건으로 교류가 적어 제주도의 문화는 특이하면서도 왜소한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역사는 독립국(탈라국)으로 시작하였지만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루지 못하여 거대한 왕궁이나 유물, 유적이 없으며 단지 각박한 풍토를 강인한 의지로 개척해나간 서민적인 생활모습이 두드러진 곳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방언이나 민속 등 여러 생활양식들이 잘 보존되고 있어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濟州島研究會, 『濟州島研究』, 第1, 2, 3集(1984, 1985, 1986), 참조.

-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향토사 학습내용 -

대단원	소단원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사료와 내용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 선사시대의 생활	2)구석기시대의 생활 3)신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지도(상7쪽)	-제주도의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않음
2.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1)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지도(상7쪽)	-곽지패총2지구 3,4층에서 공렬토기 발견됨
3. 여러나라의 발전	1)철기문화와 사회의 발전	선사시대의 유적지도(상7쪽)	-용담동무덤 북쪽묘역(독무 덤, 석관묘) 철제유물과 각 지A식토기 발견
II삼국의 발전과 그 문화 1.삼국의 발전	4)고구려의 융성	고구려의 전성도 (상31쪽)	-제주도를 탐라라 표시 탐라국의 성립을 시사
IV고려사회의 발전 2.국가체제의 정비	1)정치와 군사 조직	5도양계 지도 (상92쪽)	-탐라국 표시. 고려의 번국 -숙종10년(1105)에 탐라군으 로 고려에 편입됨.
6. 귀족사회의 동 요와 무신정권	7)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항몽순의비 (사진, 상122쪽)	-제주도 애월읍 향파두리성 1271.5.-1273.5. 대몽항쟁 -1977년 성역화
7. 고려후기 사회의 변화	1)원과의 관계	원의 탐라지배 (상125쪽)	-탐라총관부 설치. 목마장경 영. 다루가치파견. 일본정벌 을 위한 전선제조.
V 조선사회의 발전 1. 양반관료사회 의 성립	5)지방행정제도	조선초기의 행정 조직지도(상144쪽)	-제주도표시. 태종16년(1416)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설치.
	8)조운과 역원	조선시대의 조운도 (상148쪽)	-제주도를 잉류지역으로 표시. 대동법 실시이후의 조운도라 여겨짐.
I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3. 실학의 발달	5)서양문물의 전래	표류해온 서양인 (하24쪽)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일행 1627년(인조)제주에 상륙 -1653년(효종)하멜일행표류 서울로 압송. 「하멜표류기」

		하멜기념비(사진) (하24쪽)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6)서민오락	조선후기의 서민오락 분포도(하33쪽)	-제주도의 오들또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
5. 사회동요와 종교의 새기운	3)농민의 저항	19세기의 민란도 (하38쪽)	-양제해모변(1812년) 임술제주민란(강제검의 난) 발생
II 근대사회의 성장 7. 근대시설과 경제생활의 변화	4)도시의 발달	근대의 도시분포도 (하107쪽)	-제주인구 1만-2만의 도시로 표시됨. 1904년 호구보고 제주목 중면 25리 4,309호 12,651명(남:6,192명)
IV 현대사회의 발전 2. 민족분단의 시련	2)공산주의자들의 남한교란	제주도의 4.3사건 (하162쪽)	-1948년 좌익진영에서 폭동 유발. 우익의 과잉진압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

2. 분산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분산적 접근에 의한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은 국사의 교과내용이 시대순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향토사 단원도 그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향토사와 국사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산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의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또한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 맞추어 시대순으로 구성되었다.

- 분산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 향토사 학습내용 -

대 단 원	소 단 원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사료와 수집내용		자료유형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 선사시대의 생활	2)구석기시대의 생활	제주도지방 구석기 유적유물 발견지	-애월읍 빌레못동굴 박편석기. 갈색곰의 동물화석출토 -제주도와 육지와의 연결 입증	슬라이드

			-서귀포 천지연유적 첨기. 굽개. 흙날석기	슬라이드
	3)신석기시대의 생활	제주도지방 신석기 유적유물 발견지	-고산리. 북촌리. 월령 리. 김녕리. 사계리등	슬라이드 분포도
		제주도지방의 신석기유물	-토기류: 압인절렬. 용 기문. 겹아가리토기 -동해. 남해안의 영향	슬라이드
2.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1)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제주도지방 청동기 유적 발견지	-상모리 산이수동. 광 지리패총. 용담동무 덤유적 등 7개소 -청동유물은 미발견 공렬토기가 대표적	슬라이드 분포도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패총	-어로와 조개채취 원형화덕자리 확인 공렬토기출토	슬라이드
		광지패총 2지구 3-4층의 공렬토기	-점토띠토기와 함께 출토. 청동기에서 초 기철기로의 전환	슬라이드
		용담동 남쪽묘역 석관묘	-고인들의 하부구조 여겨지는 석관묘3기 -공렬토기	슬라이드
3. 여러나라의 발전	1)철기문화와 사회의 발전	제주도 철기시대 (주호시대)의 유적	-동굴입구와 바위그 늘 집자리. 패총. 고 인돌군. 독무덤 등	슬라이드 분포도
		고인돌 분포도	-남부지방에서 건너 와 발전한 위석형 -광령리. 오라동. 삼양 동 등 19지역60여기	슬라이드 분포도 현장학습
		광지A식 토기	-제주도 도처에서 출 토되는 이 시대의 표식적 유물	슬라이드
		용담동 북쪽묘역 출토 독무덤	-독무덤6, 석관묘1기 -광지A식토기. 한식철 제유물. 전한대의 유 리구슬 출토	슬라이드

		산지항 출토 오수전	-1928년 산지항 축조 시 오수전4매, 동경 출토 -중국과의 교역, 철기 문화수용을 입증	슬라이드
		주호인(탐라인)의 활동	-「삼국지 위지동이 전」의 기록 -마한의 서쪽바다 큰 섬. 中韓을 왕래	문헌자료
II 삼국의 발전 과 그 문화 1. 삼국의 발전	1) 왕권의 강화	탐라국의 성립	-제주도 개벽설화, 삼 성혈, 제주목 관아지 A구역, 각지B식 토기 -백제, 신라, 고구려, 일본, 중국과 교류	문헌자료 현장학습
4. 삼국의 문화	4) 미술	황룡사 9층탑 건립 「삼국유사」	-주위9국을 불력으로 복종시키고자 건립 -4층탁라(탐라)	문헌자료
III 통일신라와 발해 1. 통일신라의 발전	1) 정치제도	통일신라와 탐라와 의 관계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2년 탐라의 속국사실 기록	문헌자료
	4) 해상무역	탐라인의 해상활동	-韓中日간의 해상교 의 요지. 제주도내 당포라는 지명. 「당서」에 담라 기록 -선박건조, 항해술의 발달을 의미, 테우	역사지도
IV 고려사회의 발전 2. 국가체제의 정비	1) 정치와 군사조직	고려시대 제주도 지방의 행정체제	-국초: 고려의 번국 자치권 인정 -1105년(숙종)탐라군 으로 본토편입 -현으로 강동(의종) -제주로 개칭(고종) 부사, 판관파견	문헌자료
6.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	7)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제주도 항쟁	-항파두리성을 중심 으로 항쟁(1271.5. - 1273.5.)	현장학습 화보
		항파두리城내의 유적지	-토성. 구시물. 살맞은 돌. 장수물. 돌쩌귀등	현장견학 슬라이드

7. 고려후기 사회의 변화	1)원과의 관계	원의 탐라지배 (100년간)	-탐라총관부, 목마장 설치. 다루가치파견. 전선건조 -고려, 몽고에의 이중 적 고통	문헌자료
	4)공민왕의 개혁	주자도 소재 최영 장군 사당	-1274년(공민왕)배원 정책의 일환 제주의 목호의 난 진압 -이민족의 지배에서 자주성회복	사진자료
8. 고려후기의 문화	6)예술	제주도 지방의 불교문화재	-원의 영향으로 발전 법화사지. 원당사와 불탑사 5층 석탑 등	현장학습 사진자료
V 조선사회의 발전 1. 양반관료사회 의 성립	5)지방행정제도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체제	-1416년(태종)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정립 -1445년(세종)도지관 벼슬폐지. 귀족의 평 민화	역사지도
	7)교육과 과거제도	제주도의 향교와 서원	-제주. 정의. 대정향교 -굴림서원: 사액서원 (김정, 김상헌, 정온, 송인수, 송시열배향)	현장학습
2.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2)일본및 여진 과의 관계	왜구침입과 제주도의 방어시설	-고려말-조선명종 30여회의 왜구침입 -1437년(세종) 3성 10수전소 25봉대 38연대 정비	현장학습 분포도
3. 경제생활과 민생의 안정	3)국가재정과 농민의 부담	제주도의 특산물과 공물수송	-공마: 수용비용막대 (봄-여름 수송) 굴: 9월부터 10일간격 20여회 그외 해산물과 약재 -수송로: 전남 강진, 해남 경유	역사지도
4. 민족문화의 창달	7)미술	관덕정과 들보그림 (보물322호)	-무예훈련장 -작자미상의 들보그 림(취과양주굴만교, 상산사호 등)	현장학습

5. 양반사회의 변천	6) 사회와 붕당정치	유배지 제주도	-기묘사회로 충암 김정적거. 「제주풍토 록」 저술. 교학활동	문헌자료 현장학습
6. 왜란과 호란 의 극복	2) 민족의 항전	임진왜란과 제주도	-이경록목사, 용병모 집 출륙명령요청 -부호김만일, 500필의 군마헌납	문헌자료
I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2. 경제성장 과 사회의 변화	3) 상업의 발달	무형문화재 양태기술	-생계의 주요수단 조천면, 애월면일대 제주양태-강진, 해남 -서울의 양태소 -19C초 양죽의 고갈, 통영양태의 성장으 로 위축	화보
	6) 농촌사회	연자매	-동네마다 공동으로 연자매설치. 곡식의 탈곡과 도정에 이용 -수놓음(품앗이)풍습	사진자료
3. 실학의 발달	5) 서양문물의 전래	하멜기념탑 -표류해온 서양인	-1627년(인조)네델란 그 벨테브레일행 -1653년(효종)하멜일 행 「하멜표류기」	사진자료 문헌자료
4. 문예활동의 새동향	4) 글씨와 그림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그림	-1840-48년 대정현에 적거. 추사체 형성 -세한도: 유배생활의 지조를 표현	화보 현장학습
	6) 서민오락	제주도 무형문화재 칠머리당굿	-제주특유의 해녀의 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있음	화보
		영감놀이	-도깨비신에 대한 굿 풍자와 해학이 넘치 는 종합예술체. -민중의식 반영	화보
		제주도의 민요	-여성들의 노동민요 해녀노래, 뗏돌노래, 양태노래 등	녹음자료

5. 사회동요와 종교의 새기운	3) 농민의 저항	제주도지방의 임술민란	-강제검의 난. 대정현 화전민봉기 도내로 확산 -민란의 확대(방성칠 의 난, 신축교난)	문헌자료
II 근대사회의 성장 5. 국권피탈과 의병전쟁	5) 의병전쟁	모충사 의병항쟁 기념탑	-1908년 고사훈, 김석 운, 전남의병과 연결 무기제조와 군사훈 련 거사계획	현장견학
6. 근대문화의 성장과 애국 계몽운동	4) 근대학교와 민족교육	제주도지방의 근대교육	-제주보통학교(1907) 북국민학교의 전신 -신성여학교(1908) 여성교육의 시초	현장학습
		박영효의 교학활동	-고종퇴위반대로 유 배(1907-1910). 풍토 에 알맞는 작물재배 보급 -근대사상의 전파	문헌자료
III 민족독립운동 의 전개 1. 독립운동의 강화	1) 국권의 피탈	島制 실시	-제주도, 울릉도에 도 제 실시. 도사파견	화보
	6) 결사를 통한 독립운동	집의계의 결성 -연미동 조설대	-이우호 등 12명의 소장과 유학자 독립 운동 결의	현장학습
2. 3.1운동	2) 3.1운동의 전개	조천만세운동	-1919. 3. 21. -24. 조천, 신촌, 함덕등지 -조천 비밀동산(독립 선언서 낭독. 행진)	현장학습
		독립유공자 최정숙	-경성여고보사범과 재학중 3.1운동에 참여, 투옥.	문헌자료
	4) 대한민국 임 시정부의 수립 과 활동	순국열사 조봉식	-독립기금모집운동으 로(445명, 10000원모 집) 옥사.	현장학습
3. 독립운동의 발전	7) 광주학생운동	세화리 잠녀항쟁	-1932. 1. (1개월간) 세화리, 하도리 잠녀 -제주여성의 대표적 인 항일투쟁운동	신문자료

4. 민족문화 수호운동	4)민족교육운동	농업학교학생 휴학사건	-1926년 비교육적 차 별교육에 항의, 동맹 휴학	문헌자료
	5)종교활동	보천교의 항일운동	-1913년 김연일 佛務 國건설을 예언. 일본 인 습격	문헌자료
		천주교의 항일운동	-아일랜드사제 3인 반일운동으로 투옥. 일본패전을 예고.	신문자료
IV현대사회의 발전 2. 민족분단의 시련	2)공산주의자들 의 남한교란	제주도의 4.3사건	-1948년 좌익진영에 서 폭동유발. 우익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사진자료
	4)6.25전쟁의 발발	제주도와 6.25	-피난민수용소, 제1훈 련소 설치. 제주도민의 지원	사진자료

3. 주제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주제적 접근에 의한 내용조직은 일차적으로 지리적 단위, 이용 가능한 향토자료, 학생의 흥미를 참조하여 향토의 특수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제주도의 향토사학습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사는 일차적인 학습주제가 될 것이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련하여 생활유물이나 유적지는 또한 중요한 학습주제가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제주도 향토사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제가 학습가능하다.

1) 제주도의 역사²⁵⁾

제주도 원주민은 북방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여러 종족과 주변 여러 도서 지방으로부터 流移한 종족들로 복잡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에 표착한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절해고도인 이 섬에서 살아가

25) 以下,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들, 1986.,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1993. 參照.

는 동안 서로 동화, 융합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문화는 북방적인 것과 남방적인 색채를 동시에 띠고 있다.

제주도의 개국신화는 수렵시대에서 농목시대로의 정착과 씨족사회에서 초기국가로의 형성을 보여준다. 즉, 高梁夫 삼성의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삼씨족의 공동체인 원시초기국가가 성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탐라국이다. 탐라국은 처음에 가락국, 백제와 통교하였고 12세기 초까지 耽羅, 涉羅, 屯羅, 耽浮羅, 毛羅 등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며 독립국가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소국으로 웅대한 왕국이나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탐라국은 고려 태조때에 고려의 번국으로 예속되어 반독립적인 자치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는 것은 숙종10년(1105)에 일이다. 숙종은 모라를 고쳐 탐라군이라 하였고 의종때에는 강등하여 현령관을 두었다. 이는 탐라가 비로소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고려왕조의 직접통치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종조에 들어서면서 탐라가 오늘의 이름인 濟州라 개칭되어 부사와 판관이 파견되었는데 이로써 고려의 행정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늘 버려진 도서취급은 여전하였다.

고려후기 삼별초군이 입도하여 항파두리성을 쌓고 저항하자 몽고군의 지원으로 이를 토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민왕23년(1374) 목호의 난을 평정하여 자주성을 회복하기까지 제주는 약 1세기간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몽고는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활용하였고 일본정벌을 위한 전선건조 등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괴로움을 더해만 갔다. 이와 더불어 고려말-조선전기에 걸친 왜적의 끊임없는 약탈행위와 횡포는 제주인에게 어려움을 더해 주었으며 제주인들은 방어시설을 갖추는 등 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선초 對제주도 통치방식은 내지화 또는 복속화 의미의 위무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海外之人’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지적함을 넘어 해외로 상징되는 독립국가의 분리성에 대한 경계가 엿보인다. 따라서 태조16년(1416)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3읍의 정립과 더불어 향교가 곧바로 설립되고 있음은 대제주도정책과 관련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

로 인식했던 중앙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관직으로서 토관직이 회유책의 일환으로 운용되었는가 하면 선초에 실시된 제주자제의 선상문제 또한 같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제주도는 특히 정객과 학자들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권력투쟁에 따른 당쟁의 격화로 절도안치가 남용되어 당대의 명유들이 제주도에 유배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는데 그 수가 타도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은, 김정희 등 많은 유배인들은 유배적 상황을 개탄해 하지않고 오히려 그 상황속에서 교학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많은 양의 지적유산을 유배지에 남김으로써 유학의 보급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조선조는 200여년동안 제주인에 대한 무리한 출륙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제주인이 출륙이라는 것이 식량난, 군역의무의 과중, 왜적들의 침입에 대한 불안, 토호들의 압력 및 관리의 횡포 등 그 원인이 복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구호정책이나 진휼정책을 세우지 않고 대신 출륙억제정책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제주도의 대외문화적인 교류의 길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아 제주도로 하여금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는데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피폐화를 가속시켰다. 이는 제주도 사람들의 대외적인 활동력을 제한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의식을 강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말과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역사는 민족사가 그러하듯 봉건정부와 외세 그리고 일제침략의 대응사이며 민족의 수난사이다.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의식으로 봉세관의 세폐와 천주교회의 교폐에 반발하여 일어난 민란이 그러하며, 일제의 지배하에서 조천만세운동을 위시하여 끊임없이 일어난 항일운동이 그러하다. 또한, 좌익과 우익과의 사상대립으로 일어난 4.3사건은 제주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2) 제주도 상고시대의 용담동 유적²⁶⁾

제주도 상고시대의 범위는 선사시대에서 고대 탐라국의 형성 이전 또는 이후로 잡고 있다. 고대 탐라국은 그 형성에서부터 고려의 탐라군으로 편입될 때까지 문헌기록에 전하는 바가 적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제주도 상고시대를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하면서 그 주요 유적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제 주 도	우 리 나 라	유 적 지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어음리 빌레못동굴 *천지연유적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고산리유적 *북촌리 바위그늘 주거지
무문토기시대	청동기 - 초기철기	*상모리 산이수동유적 *용담동무덤 남쪽묘역 *곽지패총 2지구 3-4층
주호시대	원삼국시대	*곽지패총 2지구 1-2층 *광령리 고인돌 *용담동무덤 북쪽묘역 *종달리 패총
탐라시대	삼국시대-통일신라	*곽지패총 3, 4, 5지구 *상예동유적 *용담동유적

1984년 제주대학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용담동 무덤유적은 남쪽묘역에서는 고인들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관묘 3기와 함께 남한지방에서 유입되어 토착화과정을 걸친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다. 북쪽묘역에서는 남쪽묘역보다 발달된 형태의 석곽묘 1기와 독무덤 6기가 발견되었는데 부장품으로서 원삼국시대 것으로 확인되는 다량의 한대 철제유물과 제주도에 공렬토기군 다음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표식적 토기형태인 곽지A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처럼 두 시기의 무덤이 둘담을 경계로 나뉘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따라서 용담동 북쪽묘역의 주인공들은 남쪽묘역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토기와 철기 및 무덤양식을 소유한 이주 주민집단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전 단계의 주민과 동일계통이면서 외부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인 주민집단의 무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쪽묘역에서의 한대 철기와

26) 以下,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서 5집, 『용담동고분』, 1989. ,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의 상고문화』, 1993. 參照.

유리제품의 출토는 산지항에서 발견된 漢代 화폐 일괄유물과 더불어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 기록된 주호(당시 제주도의 별칭)와 중국과의 교역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용담동 무덤유적은 기원전후의 제주도 역사 여명기에 있었던 문화 변천의 모습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탐라 상고시대에 공렬토기를 사용하는 무문토기문화 집단으로부터 중국 한대 철기를 사용하는 괘지식토기문화 집단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뿐 아니라 초기 금속기문화의 실상을 밝혀주는 풍부한 철제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원사시대 철기문화의 전개과정을 밝혀주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3) 제주인의 생활유물²⁷⁾

제주도의 생활용구의 형성 배경은 절해고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과 풍토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잡곡재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제주도는 한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에 생활관습은 물론이요 물질문화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유지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극소수의 생활용구(푸는 체, 항아리 등)는 섬 안에서 물물교환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외의 것은 각 가정에서 손수 만들어 써왔기에 제주의 생활용구는 쓰임이 같은 종류라도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田作風土의 잡곡재배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보리, 조, 메밀 등 잡곡이 주식으로 이를 장만하거나 요리하기에 편한 용구들을 만들어 써야 했다.

이러한 형성 배경과 관련지어 제주도의 식생활용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의 정미용구가 많다는 점이다. 정미용구를 사용했던 제주여성들은 오전에는 밭에 나가 김을 매고 오후에는 바다의 일터에서 물질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척박한 환경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은 곡식을 갈고 뺨는 일들을 여럿이 힘을 합쳐 단 시간내에 끝내야 했기에

27) 以下,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삼화인쇄사, 1982., 제주대학교, 『박물관도록』, 제1집, 1989., 제주도, 『제주도지』, 경신인쇄사, 1993. 參照.

한국 본토의 정미용구로 친다면 둘이서 같이하는 절구가 제주도에서는 5-6명이 함께하는 연자매, 남방아를 비롯한 정미용구로 대형화 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내세울수 있다.

돌재, 돌로 만든 생활용구가 많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하나의 화산섬이라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뒤덮인 곳이다. 이러한 관계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정미용구를 만들고 심지어는 한국 본토에서 찾아볼수 없는 술을 빚는 소줏돌과 돌술 등의 용구도 특이하게 전하고 있다.

세재, 목제품의 생활용구가 많다는 점이다. 제주인들은 다양한 식물분포를 이용하여 좋은 재질의 나무를 골라 방아, 가구, 생활소품-도고리, 곰박, 밥자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는 제주도에는 광산이 없을뿐만 아니라 토질 또한 도자기를 만들수 있는 점흙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특징에서 알수 있듯이 제주인들이 사용한 생활도구들은 모진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간 제주인의 삶에 대한 모습과 생각들이 속속들이 배어져있는 생활의 소산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도의 생활용구들은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며, 세련되기보다는 투박하며, 웅대하기보다는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이 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지혜가 깃들여 있는 정겨운 물건들이라 할 수 있다.

4) 세화리 잠녀항쟁²⁸⁾

제주도는 육지부와 떨어져있는 고립된 섬이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침략을 거의 동등하게 받아왔으며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역시 매우 강렬하였다. 먼저 일제는 조선의 육보인 제주도어장을 탐하였는데 한말 봉건사회의 혼란에서 비롯된 해상방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재빨리 제주도어장을 약탈함으로써 이곳 어민들과의 생사를 건 충돌이 빈번하였다.

조선이 강점되면서 일제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제주도를 대륙침략의 전

28) 以下, 현기영,『바람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1989.,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長征』, 제2집, 제주4·3연구소, 1990.8.,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4. 參照.

락기지로 삼기위하여 식민지정책을 강화하였고, 토지조사사업과 조세제도의 개혁, 각종 과세제도는 상품시장화와 원료공급지라는 식민지 경제정책과 맞물려 상품경제에 어두운 도민들을 이중삼중으로 수탈하였음은 물론 자급자족적인 경제생활에 크나큰 위기와 계급분화를 야기시켰다.

일제의 관제조합은 제주도 민중의 또 하나의 수탈기구였다. 농회, 어업, 해녀, 양잠, 양계, 감저조합 등 방대한 관료적 기구인 관제조합은 각 행정기관과 일체가 되어 각종 생산을 간섭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식민지 통치와 경제적 약탈의 기본 동맥인 교통, 운수, 체신,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독점하였으며 육상교통의 정비를 위해 토지와 노동을 무상으로 수탈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탈에 대한 도민의 저항은 여러 갈래로 나타났는데 1910년대의 의병활동과 유림들의 불복종운동, 1920-30년대의 조천만세운동과 학생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자주운향운동 그리고 잠녀의 집단항거 등 줄기차게 이어져갔다. 1932년에 발생하여 3개월간 계속된 세화리 잠녀의 생존권 투쟁운동은 우리나라 최대의 어민항쟁인 동시에 부녀자들이 일으킨 최초의 저항운동이었다.

제주도는 종래 남성보다 여성의 근로활동이 두드러진 곳이었으며 그 중 잠녀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는 중요했다. 잠녀들의 노동에서 얻어낸 대가는 자급자족의 농업경제에서 곧바로 현금화 할 수 있었고, 잠녀들의 출가로 인한 타지역에서의 물질은 제주도와 육지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내에서의 상품경제의 진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잠녀들은 일제의 수탈대상이었다. 일제는 해녀조합을 앞세워 입어료를 물도록 하였고 지정판매제를 실시하여 해산물을 헐값에 가로채려고 하였다. 그외에도 저울눈을 속이다든지 조합비 사례비 등 여러 명목으로 착취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세화리·하도리·시흥리·우도 등지의 잠녀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이 벌인 생존권 투쟁운동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운동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1930년 정의면 성산포에서 최초의 항의행동이 발생하였다. 그 후 1931년 11월부터 1932년 1월까지 본격적인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에 참가한 잠녀수는 연인원 만명이 넘었다하니 그 치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

할만 하다. 결국 잠녀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12항목의 요구조건 중 9개 항목을 관철시킴으로써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력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5) 제주도의 인물²⁹⁾

제주도는 중앙왕조로부터 멀리 떨어져 늘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민족사와 관련하려 기록을 남긴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향토 인물로서는 많은 이들을 들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 세종때에 민생을 대변한 고득중, 대기근을 당해 사재를 털어 도민의 구휼에 나섰던 의녀 김만덕, 독립운동가 이용호·조봉호·고사훈,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 개척자 김광종과 채구석, 그리고 제주도 여성교육의 선봉인 최정숙·강평국·고수선 등을 들수 있다.

주권의 상실, 일제의 지배, 광복에 이은 한국전쟁, 재건기라는 파란만장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오직 민중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사회계몽과 봉사로 일궈내온 최정숙은 1902년 2월 10일 엄한 유교적 가정인 최원순과 박효원의 장녀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신문학을 꺼려하고 천주교를 두려워 하던 시절 그녀는 신성여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천주교에 입교하여 수녀의 삶을 동경하였다.

진명여자보통학교와 경성여고사범과에서 학업을 계속하던 중 3.1운동을 맞아 33인의 한 분인 박희도의 지휘아래 「소녀결사대」를 조직하여 파고다공원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녀의 나이 18세였다.

고향에 내려와 무지를 일깨우는 것이 힘을 기르고 나라의 독립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신념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폐교된 신성여학교를 재건하고자 힘썼으며 명신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다. 계속된 고문의 후유증은 그녀로 하여금 교육사업에서 의료사업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였는데 경성여학전에 입학하여(36세) 만학을 계속한 그녀는 제주읍에

29) 以下, 강용삼, 이경수 편,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제주신성 학교, 『신성』, 창간호., 신성여중 前교장 고창호선생님 회고. 參照.

정화위원을 열어 사재를 털어 기근과 병마에 시달리는 국민환자와 한국인 군속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다.

1945년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계몽운동과 문맹퇴치에 앞장서는 한편 신성여학교 재건에 동분서주하여 49년에 신성여자중학교의 인가, 53년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인가를 얻어내어 무보수의 초대교장으로 학교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무지에서의 탈피였다. 즉, 완전한 앞만이 스스로를 살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국민된 영예와 책무라 생각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가정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공로와 사회 및 의료사업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가 인정되어 천주교신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로마교황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정년퇴임 후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제주도 초대 교육감으로 발탁되어 제주도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그 후 야인이 되어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 1977년 75세로 생을 마감하니 도민들은 청빈하고 희생에 찬 봉사정신을 기려 사회장을 마련하였고 황사평 천주교묘지에 안장시켰다. 강한 의지와 추진력의 소유자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인 그녀였지만 최정숙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다. 동정녀로 혈육이 없었던 관계로 그동안 행적이 알려지지 않다가 1992년 3.1절을 맞아 나라에서는 그녀를 새롭게 조명,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기리고 있다.

6) 제주도의 유적지 五賢壇³⁰⁾

제주도는 중앙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절해고도였기에 중앙의 문화가 유입되기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이 곳으로 유배되어오는 정객과 학자들의 교학활동이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유교문화를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계몽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제주문화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30) 以下,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參照.

이러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을 엿볼수 있는 곳이 굴림서원 즉,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오현단이다. 비록 지금은 많은 유적들이 없어지고 오현단두석과 옛 자취를 대변해주는 몇몇개의 비들만이 서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직접 이곳을 찾아 현장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향토의 옛 문화를 접해볼수 있다. 더욱이 제주성터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옛 도성의 크기와 더불어 왜적방어에 힘을 경주했던 선인들의 노력도 함께 엿볼수 있다.

굴림서원에는 김정, 김상헌, 정온, 송인수, 송시열 이렇게 5명의 유현이 배향되어있다. 맨 먼저 김정이 1578년에 배향되고 끝으로 1695년에 송시열이 배향되었다. 오현 가운데 김정과 정온 그리고 송시열은 유배인으로 김상헌은 안무어사, 송인수는 목사로 내도하였다. 오현의 교학활동에 대해 면암 최익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작은 제주 섬은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오현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 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³¹⁾

第 3 節 學習方法和 指導過程

1. 學習方法

학교의 수업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가 학습내용의 조직에 관련한 문제라면 후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학습방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향토사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향토적 증거의 직접경험을 통한 탐구능력의 신장이라는 역사교육에서의 향토사학습의 중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토사학습의 내용이 분산적이기 보다는 주제적 접근에 의해 조직될 때 보다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다만 향토사학습 내용이 주제적 접근

31) 崔益鉉『勉菴集』,「爾耽羅 久未破荒 龍言皮眼 陋矣俗尙 噫我五賢 于坎 于職 觀感興作 民到今式 苟究其由意實自天」

에 의해 조직되어서라기 보다는 주제적 접근에 의해 조직된 학습내용은 분산적 접근에 비해 다양한 학습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습방법의 형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크게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³²⁾는 여섯 가지 차원에서 대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습방법들은 특별히 역사학습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교과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사학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에 대해 새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물론 여러 학습방법들이 향토사학을 위해 모두 활용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족사 학습과의 연계, 학생중심의 주제적 학습, 자기인식의 학습이라는 향토사학의 기본의의를 회실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특별히 유용한 학습방법 선택이 필요하다.

특별히 역사과 수업모형으로 강의법, 토의법, 구안법(project method), 역할놀이(role-play) 및 모의학습(simulation), 탐구학습, 개념학습, 사료학습, 인물학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³³⁾ 이밖에도 현장학습이나 자원인사초빙학습도 훌륭한 역사과 수업모형들이다. 향토사학과 관련시켜 설명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과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1) 토의법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발표하거나 남의 생각이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면적으로 사물을 보고 심층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수업방법으로 향토사학에 있어서는 서로의 대화 속에 향토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는 자아형성의 계기를 갖게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사가 주도하여 학급 단위로 전개될 수도 있고 한 학급을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게 한 결과를 그 분단을 대표하는 학생이 학급 전체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32) 李星鎬, 『教授方法의 探究』, 良書院, 1993, pp. 33-61.

33) 韓景子, 金韓宗, “역사과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기본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89, pp. 261-291.
이원순 외, 앞의 책, pp. 253-308.

2) 구안법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학습방법으로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결함으로써 실천적이며 조작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해결의 활동이며 학생 자신이 계획, 구안하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거쳐서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수업방법이다.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특정 주제나 事象에 대한 자료 모으기, 역사신문, 풍토지 만들기, 연대표, 스크랩,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構案活動이 가능하다.

3) 현장학습

학습의 場을 학습자료가 있는 현장으로 옮겨서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수업방법의 하나로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향토의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생활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事象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학습을 위한 현장은 학교의 교실환경과는 여러가지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교실수업과 다른 특별한 방법과 수업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실시되는 점에서는 어느 수업장면과도 다름이 없다.

4) 역할극

연극적인 방법을 차용하여 어떤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특정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기법으로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역할놀이를 통해 향토의 역사적 행위를 추체험함으로써 행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향토의 역사적 행위와 시대 상황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특히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행위자가 처했던 개인적, 시대적 상황에 부딪쳐 보게함으로써 그들 자신과는 다른 견해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각할 수 있게 한다.

5) 탐구법

어떤 문제해결, 또는 주제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행위를 크게 자극하는 수업방법으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지적활동을 통해 향토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감각과 그 시대의 여러 국면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함으로써 향토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탐구를 경험케 하는 수업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과정이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조건, 그리고 학생들의 정당화 제시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6) 시청각학습

시청각 자료를 학습과정에 통합시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수업방법으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향토사와 관련된 여러 시청각자료를 통해 향토사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물, 지도, 표본, 모형, 궤도, 레코드, 테이프 레코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을 사용하며 전시, 연극, 견학 등에 의한 방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학습자의 전가능성을 발달시키기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법과 미디어의 효율적 활용을 의미한다.

7) 사료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사료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수업방법으로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향토사료를 분석, 검토하는 가운데 향토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역사의 지식'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다루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이 방법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문헌자료 이외의 그림, 음악, 구전자료, 금석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한 역사학습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8) 인물학습

역사의 대상은 인간이며 역사는 여러 시대에 걸친 인간을 배우는 학문이

라는 입장에서 시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을 파악하고 그가 시대에 끼친 영향력을 검토함으로써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수업방법의 하나로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향토의 인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역사가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동력이 국민전체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10) 자원인사초빙학습

학습시키고자하는 내용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인사를 초빙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학습대상에 따라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인사를 초빙하거나 방문하여 그들로 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청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1) 강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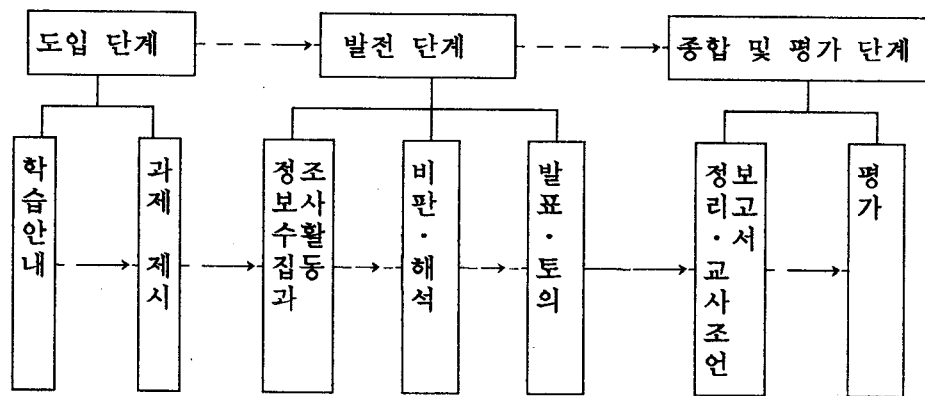
교사중심적 수업형태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학습자료를 설명 또는 주입의 형식을 통해 행하는 수업이다. 향토사학습에 있어서는 향토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 효과적이며 수업할 내용이나 과제가 정보와 지식수준일 때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대상 학생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이 낮으면 학습자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변모시키고 따라서 사고력 신장을 저해하기 쉽다.

2. 指導過程

그런데 실제의 향토사학습에서는 여러가지 학습방법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교차하여서 특정한 하나의 방법만을 주장하거나 변호하기는 실제 불가능하며 또한 비효과적이다. 물론 중심되는 학습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심되는 학습방법을 논의하면서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학습방법들을 고려할 때 비로소 향토사학습 방법에 대한 제대로된 입장이 견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방법은 적절한 교수·학습의 본시학습단계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Alberty는 본시학습단계를 1)도입과 계획의 단계, 2)발전의 단계, 3)종합·평가의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었으며 H.Taba는 Alberty의 종합·평가의 단계를 2단계로 세분하여 전체적으로 1)입문·개시·오리엔테이션 단계, 2)발전·분석·연구단계, 3)일반화단계, 4)적용·종합·極頂단계로 구분하였는데³⁴⁾ 이들 간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을뿐 수업 전과정의 기본적 흐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Alberty나 Taba의 견해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향토사학습의 본시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시켜 볼 수 있다.



각 단계는 학습활동의 흐름을 참고한 것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안내

학습안내에 교사가 학생에게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향토사학습 주제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는 활동이다. 사전 설명에는 향토사학습의 주제와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과 수업전개 방식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34) 李榮德, 『教育의 過程』, 배영사, 1977, p. 252.

2) 과제제시

과제 제시는 학생들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으로 과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교사가 수집, 정선한 자료를 과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때 과제는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보수집과 조사활동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은 학생들이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학생은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서가 아니고 유용한 증거를 이용해 과거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역사의 실제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의 방법으로 문헌조사나 현장 조사 혹은 인터뷰 등이 대표적이다.

4) 비판과 해석

비판과 해석은 수집된 정보를 학습정보로서의 타당성 등 일정한 원칙에 의거 구성, 배치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정선한 자료를 분석·비판하고 자료를 해석·종합하여 과제 순으로 분류하는 절차로 작업이 진행된다.

5) 발표와 토의

발표와 토의는 학급별, 분단별, 조별 등의 형식으로 제시된 과제의 달성 결과를 발표하고 또한 토의하는 활동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해석·종합한 자료를 발표·토의하기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6) 정리

정리는 발표와 토의를 거쳐 조사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서 학습내용을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적절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또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해줌으로써 발표와 토의 결과를 간결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7) 평가

마지막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는 활동으로서 향토사학습의 평가에 있어서는 학생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통한 평가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진단검사 문항과 학습 후 필요한 문항을 보완하여 동시에 평가하거나 보고서 평가, 또는 전후비교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고찰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第三章 濟州島 郷土史學習의 實施와 評價

第 1 節 郷土史學習의 準備

1. 郷土史學習의 與件

제주도 향토사학습의 본시수업은 주제적 접근방법에 의해 조직된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 2학년 학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제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학급전체 또는 개인별 활동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8명 정도의 그룹별 활동³⁵⁾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시수업 실시 일주전에 미리 주제와 학습목표 그리고 학습전개과정을 알려 충분한 조사활동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본시수업에 있어서는 1~2시간 정도를 배려, 학생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으로 이끌었다. 본시수업 실시 후에는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문을 제출토록 하였다.

제주도 향토사학습 실행을 위한 준비와 진행은 다음과 같다.

A. 수업 대상 :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학년 3개반 (1, 2, 3반) 150명

2학년 6개반 (1, 2, 3, 4, 5, 6반) 300명³⁶⁾

35) 향토사학습에서는 소집단학습을 활용하였다. 소집단학습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그 외에 아이디어의 교환, 민주적인 인간관계의 육성 등을 이점으로 들수 있다. 물론, 집단내의 유력한 학생의 의견에 의해 좌우된다든지 분위기가 너무 자유로워 본래의 학습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으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두드러져 본학습에서는 소집단학습을 활용하였다.

36) 2학년을 대상으로 함은 국사를 배우고 있어 향토사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1학년은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향토교육에 어느 정도의 향토사학습이 가능한지를 알고자 함이었다. 아직 향토사학습이 교육과정에 편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회와 국사시간을 조개어 실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모든 반에 똑같은 학습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어느 한 반이 풍토지를 제작하면 다른 한 반은 연대표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썼

B. 수업 장소 :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소강당

C. 학습주제 선정과 자료수집 기간 :

1992년 12월 1일 ~ 1993년 3월 20일

D. 본시수업 실시 시기 : 1993년 4월 ~ 1993년 9월

E. 본시수업의 내용 :

학습주제	학습방법	교수기자재	학습과정	대상	수업실시일
제주도의 환경	시청각학습, 강의학습	V.T.R, 칠판, 과도(교사제작)		1학년 3개반 2학년 6개반	93년 3월 28, 29, 30일
선사시대 유적유물	시청각학습, 강의학습	슬라이드, 칠판, 과도(교사제작)		1학년 3개반 2학년 2개(4, 5)반	93년 4월 17, 19일
제주도의 풍토	사료를 이용한 작업학습	과도(학생제작) 칠판	제주풍토 발표 풍토지 제작	1학년 3개반 2학년 2개(4, 5)반	93년 6월 4, 5일
제주도의 역사	사료를 이용한 작업학습	과도(학생제작) 칠판	연대표 작성, 발표	2학년 4개반 (1, 2, 4, 5)반	93년 6월 13, 15일
제주인의 생활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토의학습	생활도구, 칠판	생활소도구 수집, 전시, 토의	1학년 2개(1, 3)반 2학년 6개반	93년 7월 1, 2일
대외투쟁	사료를 이용한 작업학습	연극 소도구	시나리오 작성, 연극발표	2학년 2개(2, 4)반	93년 7월 21일
제주도의 문화재	조사학습		문화재 탐방, 면담 문헌조사, 스크랩 작성, 역사신문 만 들기, 발표회	1학년 3개반 2학년 6개반	여름방학 기간이용
제주도의 유적지	현장 견학학습		문화재답사, 보고서 작성	1학년 1개(3)반 2 학년3개(1, 2, 4)반	93년 9월 15, 16일
제주도의 인물	자원인사를 이용한 인물학습	과도(학생제작) 자원인사면담	그룹별토의, 자원인사방문	2학년 1개(4)반	93년 9월 27일

다. 그리고 1학년은 아직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향토사수업이 힘들어 토의학습은 실시하고 연대표제작은 하지 않는 등 선별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2. 郷土史學習의 豫備

역사교육에서 활동을 수반하는 방법(acting method)과 사료 학습(archive teaching), 시각적인 자료(visual evidence)를 적절히 이용하면 인지능력이 뒤떨어진 아동들에게도 역사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³⁷⁾은 중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제주도 향토사학을 위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주제적 접근에 의해 조직된 제주도 향토사 학습내용과 관련시켜 실제수업에서는 그 주제를 학습하는데 적절한 학습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실제수업에서 다룬 학습주제들은 앞의 본시수업의 내용에서 밝혔듯이 9가지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第 2 節 濟州島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의 3. 主題的 接近에 의한 濟州島 郷土史 內容組織에서 검토하였던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濟州島 上古時代의 용담동 유적과 濟州島의 人物이라는 주제를 제외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이 가능하였던 4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렇다고하여 9가지 주제 가운데 소개하지 않은 다른 5가지 주제의 향토사학습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학생중심의 체험적이며 작업적인 향토사학습의 성과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다.

1) 제주도의 역사

이러한 주제는 강의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향토사학습 차원에서 강의법은 제주도 역사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해 간략하게 이용하였고 주로 구안법과 사료학습 그리고 조사학습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안법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으로 연대표 제작을 통해 제주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작업학습 방법을 택하였으며 연대표 제작을 위해 각종 사료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조사

37) R.N.Hallam, 'Piaget and Thinking in History' in M.Ballard(ed.), *New Movements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London: Indiana Univ. Press, 1974, pp162-178.

학습과 사료학습을 병행하였다.

2) 제주도의 생활유물

이 주제는 만약 생활유물에 대한 슬라이드 필름이 있다면 시청각학습과 함께 강의법을 병행할 수 있겠으나 그런 방법보다는 향토사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직접 유물을 수집하고 또한 그것을 전시하고, 관람한 후 토의를 하게 함으로써 조사학습과 시청각학습 그리고 토의학습을 다양하게 병행하였다. 또한 유물 전시와 전시장 꾸미기를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함으로써 구안학습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피하였다.

3) 제주도의 세화리 잠녀항쟁

이 주제를 위해서는 잠녀항쟁의 발생지인 세화리를 현장방문하는 현장학습도 가능할 것이며 잠녀항쟁에 참가했던 인사를 초빙하여 경험담을 듣는 자원인사초빙학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잠녀항쟁이라는 사건을 추체험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할놀이를 통한 극화학습이 이루어졌다.

4) 제주도의 유적지

제주도 유적지의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는 시청각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역사 증거의 직접경험이라는 차원에서 현장학습이 이루어졌다. 물론 현장답사할 장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위해 강의법을 이용한 간단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학생들은 안내책을 구해보거나 사진기나 녹음기 등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 습득을 위한 사료학습 또는 구안학습이 병행되었다.

第 2 節 郷土史學習의 實際

1. 視聽覺 討議學習 事例 : 제주도의 생활유물



- 유물전시회 -

1) 학습안내 :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를 수집하고 수집된 유물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이야기 해보고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고 유물을 대하는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요지의 학습목표를 설명하였다.

2) 과제 제시 :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유물수집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유물이라고 하면 생소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조상들이 쓰던 물건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수집한 유물을 제출할 때 유물의 명칭은 물론이며 유물의 용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3) 정보수집과 조사활동 : 생활유물은 대략 280여점을 수집하였으며 수집자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2학년	1 반	2 반	3 반	4 반	5 반	6 반
생활유물 수집자	19명	35명	25명	33명	13명	22명

또한 수집 유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품목	갯수	품목	갯수	품목	갯수	품목	갯수
낚시화로	2	낚시가락	33	베 틀	1	나무국자	4
토기화로	1	낚시가락	2	허 벽	2	낚시밥자	7
인 두	6	나무향합	2	술 병	4	나막신틀	1
저 울	2	낚시향합	2	엽 전	30	망건틀	1
도 서	5	연 적	2	지 폐	25	바구니	4
재 봉틀	1	나막신	1	춧 대	4	담배대	2
방망이	4	징 신	1	향 료	5	함지박	2
참 빗	3	낚시술잔	6	비 너	1	쇠다리미	2
실 패	2	사기술잔	7	쟁 반	1	홍깃대	1
곰 박	15	목기술잔	2	괘 열쇠	1	삼베털	1
낚그릇	17	명주북	4	도시락	1	여성용구	2
사기그릇	13	씨 아	1	재 털이	1	저고리	2

4) 비판, 해석 : 소강당을 이용하여 유물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공간 마련이나 유물 배치도 학급별로 학생들이 직접하였고 관람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를 이용하였다. 학교측의 배려로 관람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였다.

5) 발표, 토의 : 1학년 2개반과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토의학습이 이루어졌으며 2학년의 경우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³⁸⁾

2학년	1 반	2 반	3 반	4 반	5 반	6 반
토의학습 참여자	10명	15명	18명	13명	15명	23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조상들이 쓰던 생활소도구 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38) 토의학습은 2학년 2반의 것으로 본인이 녹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서로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물건들이 옛날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수 :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낫그릇은 아래층 아줌마네 것인데 학교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선듯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쓰시던 실패와 다듬이 방망이. 할아버지가 보셨던 명심보감 등의 책을 여러분에게 공개했습니다.

* 강유정 : 저는 한약의 무게를 재는데 쓰였던 대저울을 갖고 왔는데 일제시대 때의 할아버지가 쓰셨던 것입니다.

* 김지연 :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담배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우리의 관람태도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낫선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느낀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홍경실 : 이틀간 전시회장의 담당자로 우리 집처럼 이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람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곳은 미니 박물관이나 다름이 없는데 장난기어린 관람태도는 안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면서 옛 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 홍민정 : 이 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것은 나무로 만든 바구니인 옛 도시락이었는데 옛날의 것과 오늘날의 것을 비교하면서 관람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상에 대해 그리고 조상의 역사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기로서 자기 생각의 정립기인데 조상의 얼을 지켜나가는 자세도 아울러 갖추었으면 합니다.

*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물을 보면서 오늘날의 물건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부청신 : 저는 숯을 놓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화로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있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방이 뜨거워지고 더운

물이 나오는데 옛날의 삶은 매우 불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홍경실 : 그러나 요즘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처럼 좀 추워도 참을줄 알고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 김경순 : 저는 오늘날 사용하는 물건들이 옛날에 쓰던 물건들과 원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즉 이러한 유물들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기있는 재봉틀만 보드래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 썼습니다. 하나하나에 조상의 지혜와 향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강기영 : 저기있는 옷을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만든 옷은 이쁘지는 않지만 입으면 시원하고 일하기에도 편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보다도 편한 옷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미 : 오늘날의 옷은 이쁘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모두가 공장에서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사서 입습니다. 그래서인지 싫증이 나고 조금 해지기만 하면 아무 생각없이 버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옷어른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어서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 김보라 : 정성이 담겨져있다 하더라도, 시원하다고 하더라도, 활동에 편하다 하더라도 저는 저기있는 옷을 입을수 없습니다. 보기에다 좋지않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오늘날의 옷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형 : 저는 최근에까지도 쓰였던 빨래방망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망이를 이용한 빨래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미 : 우리 어머니 애기로는 집안에서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옛날의 가옥구조는 수돗가가 밖에 있어서 방망이를 두드릴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생활이 많고 집안에서 빨래를 하기 때문에 빨래방망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백송희 : 옛날에는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서 빨래를 했는데 서로 애기도 나누고 방망이를 힘껏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 김성희 : 저는 쇠로 만든 녹슨 다리미를 보았습니다. 솥을 넣어서 입에서 물을 뿜으며 옷을 다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스팀 다리미는 시간은 절약되지만 정성이 옛날만 못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사회상을 종합해 주십시오.

* 김경순 : 오늘날의 생활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생활에는 정성이 깃들여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회의 발달이 늦어집니다. 생활도구들도 사회의 발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 이지형 : 오늘이 좋다. 옛날이 좋다. 단정지어서 얘기할순 없습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 훨씬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이웃간의 정이나 협동심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날 도구들을 그대로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정신만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좋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유물들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활용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해미 : 옛날 것을 무조건 모아두면 돈이 된다는 즉, 재산으로 생각하여 모아두는 마음자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유물은 조상의 얼이 담긴 것이라 여기며 마음에 새기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백일화 : 저는 화폐와 외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정신. 그리고 지금도 떡을 건질 때 쓰는 곰박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곱게 보관하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옛 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안 계실때 옛 것들을 쓸모없는 물건들이라 하여 몰래 던져버리곤 하셨는데 이러한 전시회와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여겨집니다.

* 사회자 :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유물들을 바라보는 마음자세가 정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6) 정리 : 「여기에 전시된 물건들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수많은 생활의 손때들이 묻어있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정겨운 물건들을 보면서 진

지한 태도로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선인들의 얼을 본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의 의젓한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보입니다.»는 요지의 조언을 하였다.

7) 평가 : 1학년 1반 권주미 학생(A)과 2학년 5반 김인아 학생(B)이 생활유물 전시회를 통한 토의학습을 끝내고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보고서 A ***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까?’ 오늘은 전시회 관람이 있는 날.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내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다. “자. 조용히 떠들지 말고 조심해서 관람해라”하는 체육 선생님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들은 조용히 관람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런데 정말 나는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2학년 언니들의 도움으로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폐 변화모습이 담긴 것도 있었고, 또 옛날 그 당시 사용하였던 밥그릇, 수저, 도시락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해방직후 사용되었던 사회교과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책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나 맨 뒷장에 쓰여진 글에서 힘들었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수 있었다. 또 그 당시의 제주인들이 입었던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옷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주인들의 소박함과 순수함을 느낄수 있었다. “시끌시끌” 그러나 조용해야할 전시회의 관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소란스러워졌으며 관람하는 학생중에는 전시품들을 만지는 학생도 눈에 띄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어제 관람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발표하는데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서인지 참여하는 학생이 적었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보다 많은 학생들이 발표와 토의를 함으로써 토의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무난히 마칠수 있었다. 나는 이번 전시회와 토의를 하면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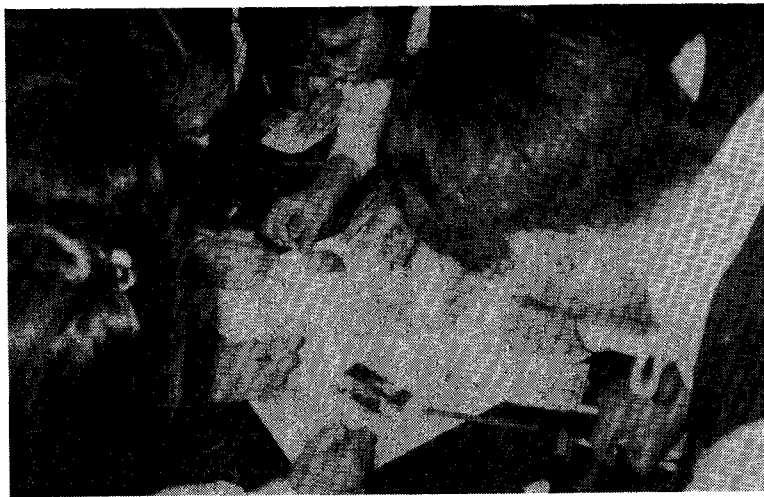
다. 다음 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고싶다.

***** 보고서 B *****

설레임과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이번 향토사학습은 정말 새롭고 흥미로웠으며 전혀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수집과 관찰을 통한 전시·감상·토의학습의 과정도, 내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내고 배우며, 전시된 유물들과 서로 비교·관찰해보는 그야말로 다채로운 학습이었다.

또, 전시회에 대한 토의학습도 아주 새로웠고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평소 다소의 이기심이 있었던 나에게 토의학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이해의 폭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어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느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또한, 어려웠던 시절의 우리 조상들의 유품을 보며 생활의 지혜속에서 순고함과 청순한 정신의 미를 물씬 느낄 수 있어 오늘날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함도 깨달을 수 있었다.

2. 史料學習 및 構案學習 事例 : 제주도의 역사



- 연대표 만들기 -

1) 학습안내 : 「향토의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을 민족사의 흐름에 맞추어 연대표로 나타내봄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특징을 파악한다.」는 요지의 학습목표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연대표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대표의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간략히 강의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향토역사서를 소개하였고 고대나 중세보다 근대와 현대를 그리고 민중의 생활에 중점을 둘 것 등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2) 과제 제시 : 2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연대표 제작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정보수집과 조사활동 : 각 조별로 시대에 따라 몫을 나누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주말을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관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4) 비판, 해석 : 각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연대표를 제작하였다. 수업시간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방과후에 학생들 스스로 제작하였다. 교사는 연대표를 제작하는 학생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제주도 역사의 특징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지도되었다.

5) 발표, 토의 : 제작된 연대표를 발표하고 서로 교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2학년 1반 3조가 제작하여 발표한 연대표이다.

- 향 토 사 연 대 표 -

시 대	년 대	있 었 던 일	향토사료
선 사 시 대	구석기 - 철기	*애월읍 빌레못동굴-제주와 육지와의 연결 확인 *고인들의 분포-용담동, 삼양동, 오라동 등 *광지의 조개무지, 용담동의 분묘유적 *「삼국지동이전」: 주호국에 대한 기록	
삼 탐	476년	*탐라의 옛 명칭: 탁라, 탐부라, 모라, 둔라 *백제 문주왕	

국 통	라 국 시 대	498년	동성왕에게 토산물을 진상함 *중국과의 문물교류-1928년 제주항 축조공사장에서 유물 발견	
	통	679년	* 신라 문무왕 탐라경략	
고 려	탐 라 군 현 시 대	1105년 1253년 1267년 1271년 -1273년	*숙종10년, 모라를 탐라군으로 편입. 지방관 파견 *고종40년, 백성을 구제하고자 한라산신제 지냄 *경래관의 부정에 항거한 민란 발생 *삼별초, 탐라에 상륙. 향파두리성 쌓음. 여몽연합군에게 패배. 몽고의 지배를 받음	*항몽유적 지. 순의비
	원 지 배	1276년 1374년	*원의 목마장 설치-목마장으로서의 제주도 시작 (초지가 좋고 기후온난하며 맹수가 없어 적합) *최영장군의 목호의 난 진압-100년만에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 회복	
			*왜구의 침입(고려말 -조선전기. 30여회)	
조 선	제 주 목 시 대	1416년 1427년 1448년 1519년 1627년 1657년 1702년 1751년 1739년 1898년 1901년 1906년 1909년	*태종16년 전라도 관할로 제주목, 정의. 대정현설치 *세종9년 제주자제 고득중, 한성부판윤에 오름 *무예단련의 무예단련의 장소로 관덕정 창건 *생활의 어려움 -토지척박. 출륙금지령, 지방관의 횡포 등- *충암 김정, 기묘사화로 유배. 「제주풍토록」남김 *유배인의 교학활동 -송시열. 김춘택. 김정희. 김윤식. 박영호 등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제주에 표류 *하멜일행 표류-「하멜표류기」남김 *숙종28년 이형상목사 부임. 미신타파. *계속되는 흉년과 전염병-김몽규목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웅증석(둘하르방)조각. 설치 *김만덕. 제주백성을 진휼함 *제주의 민란 -국가기강의 문란. 진주민란의 영향 *방성철의 난-목사의 탐욕에 대항 *이재수의 난-천주교도와 제주도민의 무력충돌 *한말의 계몽운동 *제주공립보통학교(북교전신)설립 *신성여학교(본교)설립-천주교신부 구마슬	*보물322호 돌보그림 *대정, 김정 희 적거지 *사계리 하멜기념비 *둘하르방 *조선왕조 실록. *삼의사비
일 제 시	제 주 도	1910년 1919년	*주권상실. 토지의 약탈 등 일제의 경제적 약탈 *제주도민의 저항운동 *만세운동-조천. 함덕. 신촌리	*조천 만세

대	시	1926년	*제주농업학교의 동맹휴학-차별교육에 항의	
	대	1932년	*잠녀의 생존권 항쟁	
대한	제	1946년	*제주도로 승격	
민	주	1948년	*4.3항쟁-무차별 진압으로 인명피해	
국	도	1950년	*한국전쟁-피난민 수용	
	시	1965년	*한라문화제 개최	
	대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행정구역 : 2시 2군 7읍 5면 31개동	

6) 정리 : 「각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오늘을 이끌어온 선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본받으며 향토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향토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내용의 조언을 하였다.

7) 평가 : 2학년 5반 문소연 학생(A), 2학년 2반 김경순 학생(B)이 연대표 제작을 통한 史料 構案學習 끝내고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보고서 A ***

처음 향토사학을 한다는 데에 불만이 많았었다. 모의고사다 월정고사다 계속 시험이 있는 데다가 제주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알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가 조사한 제주도의 십분의 일도 안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학습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느낌을 적어본다.

처음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일요일에 우당도서관에 가니 4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책에서 내용을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츰차츰 걸음을 배우듯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보니 '제주도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다시금 제주도에 대해 알게 되어서 기뻐다. 내가 열심히 조사한 내용과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과 함께 종합하여 전지에 적고는 국사시간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 전지를 꾸몄다. 꾸미는 도중에도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모두가 협동하여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

면서 이러한 향토사학습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만족을 감출수가 없었다.

정성들여 만든 연대표를 7교시 국사시간에 발표했다. 약 한시간 동안 친구들의 조사내용도 듣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 제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제주도에 대한 질문에 끝먹은 병어리처럼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제주에 대해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조사를 하며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보람과 기쁨을 감출수가 없다. 향토사 연대표를 제작한 지금 내 마음 한 구석엔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 보고서 B ***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향토사 연대표 제작'이라는 과제를 주셨다. 워낙 우리 고장인 제주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였다. 우리 조는 무작정 자료있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맸고 이 과제에 대한 감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서로 역할분담을 시작했고 자료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자료가 모아지자 우린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은 자료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허술했다. 모두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 일은 우리들이 만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곧 깨닫고 더욱 더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다.

모든 자료준비가 끝난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향토사 연대표 만들기에 분주했다. 다른 조보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성을 들였으며 사진 한 장 붙이는 것도 정성껏 함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우리 고장에 대해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기뻐다. 이것을 발판으로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내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이 일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재미있고 슬펐던 일을 내 가슴에 깊숙한 곳에 접어들 것이다.

3. 劇化學習 事例 : 제주도의 세화리 잠녀항쟁



- 연극공연 -

1) 학습안내 : 「일제시대 제주도에서 일어난 잠녀항쟁을 연극으로 꾸며 역할을 대행해 봄으로써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 국가관을 새롭게 가다듬는다.」는 요지의 학습목표를 설명하였다.

2) 과제 제시 : 한 반에 있는 여섯 조를 다시 두 개의 조로 재편성하여 잠녀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한 조가 극화하고, 다른 한 조는 잠녀투쟁의 현장을 극화하도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정보수집과 조사활동 : 잠녀항쟁에 대한 간단한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이 연극극본을 쓸수 있도록 사료를 제공하였다.

4) 비판, 해석 : 대본 작성과 배역 결정 그리고 극화연습이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학급 전체 학생이 연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5) 발표, 토의 :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1개반이 1시간씩 2개반이 동

시에 극화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2학년 4반 1,2,3조가 공동으로 작성한 극화 대본이다.

때 : 1932년 일제침략하
장 소 : 제주도 북제주군 세화리
해 설 : 할머니(봉순이).
등장인물 : 봉순이. 봉순이어머니. 봉례(봉순이의 딸)
대학생. 일본인1,2.
탐동매립에 관련된 잠녀 1,2,3,4.
세화리 잠녀항쟁에 관련된 잠녀 1,2,3,4,5,6.

(무대 중앙에 봉례를 중심으로 해녀들이 모여앉아 탐동매립에 대해 의논하고 있고, 그 옆에는 나이드신 봉례의 어머니 즉 봉순할머니가 앉아있다.)

봉례 : 탐동이 매립되면 우리는 뭘하고 살아? 우리가 앞장 서서 매립을 막아야 하여.

탐동잠녀1 : 맞아마썸. 탐동이 매립되면 성인오락실, 디스코텍인지 뭔지들만 수두룩 세워질텐데 그런 꼴 보려고 매립합니까? 매립을 막아야 하여.

탐동잠녀2 : 하지만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 뭘 합니까?

탐동잠녀3 : (불안한듯이) 맞수다. 그러다가 큰 코 닳치게 되면 우리 그 이는 어떻게 하여?

탐동잠녀4 : 우리 손해보는 것 말고 보상금 받고 조용합시다. 보상금도 짹짹할텐데.

봉순할머니 : (의논하는 틈에 끼어앉아) 애들아. 너흰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면 어쩔거냐.

(할머니의 어린시절 잠녀항쟁의 회상이 시작되며 얘기를 해준다.)

해설 : 내가 7살때였지. 우리 어머니는 세화리 잠수대회에서 2등을 한 바 있는 이른바 물질의 권위자였어. 어느날 난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나갔어. 조그마한 종이를 켜 해녀들이 줄을 서 있었어.

세화잠녀1 : (출어증을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려 한다.)

일본인1 : 이거 무식한 잠녀도 다 있다. 어디 출어증을 보이지도 않고 갈려고.
대일본제국의 나를 뭘로 보나?

세화잠녀1 : (큰소리로) 여기는 우리 바당인디. 거기다가 해산물 값을 너무 낮게
매겨서 출어증 발급 받을 돈이 없었던 말이우다. (그러다가 소리를 낮추며 애교를
떨며) 한번만 봐줍서.

일본인 : 무슨 말이노 그렇게 많나. 썩 꺼져.

봉순이어머니 : (출어증을 보이고 들어감)

봉순이 : 어머니 이거 뭐우파? 신용카드파?

봉순이어머니 : 무슨 신용카드 말이고. 출어증이여. 이것이 있어야 바다에 들어
갈수 있는 있는거여. 물질하고 올테니 넌 여기서 놀라이.

해설 : 잠시후 어머니 소라며 전복 등을 한아름 잡아가지고 돌아왔지. 그리곤 일
본인에게 값을 매기러 갔어

봉순이어머니 : (해산물을 내밀며) 값 좀 잘 줘서.

일본인2 : 35전

못생긴 세화잠녀2 : (봉순이어머니보다 많은 해산물을 내민다.)

일본인2 : 20전

세화잠녀2 : 좀 많이 줘서. 무사 그것밖에 안 줘수강?

일본인2 :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그럼 15전.

예쁘게 생긴 세화잠녀3 : 고생 고생해서 캔건디 좀 잘 줘서.

일본인2 : 히히히. 나중에 좀 시간 내줘. 50전.

해설 : 그날 난 그 외에도 알수 없는 것들을 많이 봤어.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난 집으로 달려갔어. 우리 집엔 폐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내려온 대학생이 있었는데
내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

대학생 : 봉순이 왔구나.

봉순 : 오늘은 이상한 거 많이 봐수다. 어머니따라 바당에 갔다가.

대학생 : 뭘?

봉순 : 어머니가 바당에 들어갈때 꼭 필요하다는 출어증을 내밀고. 해산물을 많
이 잡은 개똥이 어멍은 돈을 조금 주고, 적게 잡은 옆집 순자언니는 돈을 많이 쳐

주고.

대학생 : 넌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게 다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일을 모두 빼앗겨 버렸어.

봉순 : 그 자식들이 뭔데.

대학생 :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 손에 있는걸.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우리대로 살아갈수 있는거야.

해설 : 대학생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고 어린 가슴에 아저씨의 말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기에 나는 어머니에게 아저씨가 해 준 말들을 했어.

봉순이어머니 : (방에서 봉순이와 감자를 먹다가) 내가 뭘 안다고? 쪼그만헌게. (봉순이를 쥐어 박는다.)

해설 : 어머니의 통명스러운 대답에 난 울고 말았고... 그 때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했지. 우는 통에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크게 바꿔놓은 이야기만은 틀림이 없어. 다음날 어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았고, 12월 18일. 우리 집에는 잠녀들이 모여들었지. 저마다 할 얘기를 가득담은 듯한 눈들은 매서웠고 표정들은 사뭇 진지했어.

봉순이어머니 : 다 모여수광? 개똥이 어머은 저 번에도 아니왕게 오늘은 와수강?

개똥이어머 : 나 와서.

봉순이어머니 : 여러분. 저 넘실거리는 바당은 누구거봐? 바로 우리 게 아니우파? 경헌디 어똥허영 우리 바당에 가논디 허가증을 내밀고 가야하며 그 값 또한 제대로 안 주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바당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일제히 박수를 친다.)

세화잠녀4 :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요구사항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화잠녀5 : 참 Good idea인디 언제 합니까?

세화잠녀6 :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수짱?

(세화잠녀들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해설 : 회의는 점점 무르익어 갔고 회의 결과 12월 20일 세화리 장터에서 지정 판매제 반대, 계약보증금 생산자의 보관, 미성년과 40세 이상 잠녀의 조합비 면제, 출어증 무료 급여, 조합제정공개 등 12개 조항을 요구하기로 했어.

6) 정리 : 강인한 제주여성의 후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의 성과와 기쁨에 대해 조언하였다.

7) 평가 : 2학년 2반 양은수 학생(A)과 2학년 4반 김현미 학생(B)이 잠녀항쟁 연극을 통한 劇化學習을 끝내고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보고서 A *****

우리가 수업의 주체가 되어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직접 연극도 한 이 수업은 휴일 날까지 나와서 연습하고 서로의 의상을 챙겨주면서 우리 반 학생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본 쓰는 것 때문에 며칠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우리 학급 친구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재현시켰다는 점은 영원히 자랑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세화리 잠녀항쟁’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일본인의 괴롭힘에 참다못해 1932년 1월 12일 장날에 부녀자들이 일본인 도지사를 앞에 두고 ‘우리의 요구’를 낭독하고 일본 순사에게는 몸으로 맞서 대항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기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좀 더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도 가져보며 내게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더 헌신적으로 해보리라 마음 먹는다. 더불어 우리의 지혜를 모아 발로 뛰고, 그 후에 보람도 맛볼 수 있는 이런 흥미있는 수업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길 바란다.

***** 보고서 B *****

우리 반 아이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 역을 정하고 방과후에 모여 연습도 하였다. 시간이 없어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쁨이 남는다.

연극의 제목은 ‘세화리 잠녀항쟁’ 거기서 내가 맡은 역은 ‘탐동해녀3’.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진짜 연극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처음과 끝에 나오는 짧은 역이었지만 너무 열심히 한 탓인지 대사를 잠시 잊어

버려 웃은게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우리 반이 노력의 결과였는지 후배, 선배, 선생님들 앞에서 세 차례나 앵콜 공연을 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수를 받을 때의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다. 그리고 한번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연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일은 내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4. 現場學習 事例 : 제주도의 유적지



- 현장견학 -

1) 학습안내 : 「주변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해봄으로써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고 제주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새롭게 다져본다.」는 요지의 학습목표를 설명하였다.

2) 과제 제시 : 제주시 삼도동 소재의 유적지 관덕정, 제주목 관아지, 제주성터, 오현단에 대한 현장답사하고 견학 보고서 제출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3) 정보수집과 조사활동 : 현장답사할 장소에 대해 간단한 강의를 하였고 학생들은 안내책 등을 통해 필요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였다.

4) 비판·해석, 5) 발표, 토의 :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현장학습을 하며 유적지에 대한 정보나 소감 등을 현장에서 교환하였다.

6) 정리 : 교사의 간략한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현장견학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2학년 4반 이지현 학생의 보고서이다.

- 현장견학 보고서 -

현장견학 코스	관덕정 - 제주목 관아지 발굴현장 - 제주성터 - 오현단
소재지	제주시 삼도동
일시	1993년 9월 16일 오후 3시-5시
향토사료	* 관덕정(보물322호) : 조선시대 병사 훈련장 대량밀에 장활양면에 벽화가 그려짐 (십장생도, 신선사호, 적벽대첩도 등) * 제주목 관아지 : 1991년 발굴시작, 탐라시대의 괘지B식 토기 발견 * 제주성터 : 탐라시대부터 왜적 방어를 위해 쌓은 남쪽 성터 답사 * 오현단 : 제주 지방 발전에 공헌한 유배인이나 관리를 배향(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 송시열)
견학 소감	내가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성터, 관청 등의 유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했다. 관덕정은 옛 군사훈련지라는 것은 아버지께 들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옛 관청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성터가 남아있었는지도 몰랐었다. 현장학습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제주도에 관한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뻐고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7) 평가 : 현장견학 보고서의 견학소감을 발표함으로써 평가를 대신하였다.

第 3 節 郷土史學習의 結果

학생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소재를 끄집어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향토사 학습의 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학생 주체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종래의 강의식 수업, 전체학습에서 탈피하고 주로 소집단학습으로 진행시켰는데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찾아 조사하기도 하고,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온 학급 학생이 참여하여 연극을 꾸며보기도 하였으며 연대표, 풍토지, 스크랩북 등을 의견을 종합하며 제작하기도 하였고 보고서와 감상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주체가 된 학습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활동뒤의 「아는 즐거움」에 대해서 만족해 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더 알고 싶다.」 「꼭 현장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였으며, 「향토에 대해 몰랐던 점이 부끄럽다.」 「우리 제주를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등 향토애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향토사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18) 39) 이것을 계기로 제주도에 대해 궁지(8)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향토사학습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적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학생들은 “학습에 새로운 체험”(7)을 하거나 “새로운 학습방법을 터득”(8)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외에도 “문장력”(3)을 함양하게 되었다거나 “조상의 슬기”(6)를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집단을 통한 협력학습의 결과로 “협동심”(15)을 갖게 되었다는 보고의 빈도가 눈에 띄게 많았다. 그 외에 “문화재”(1)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으며 “국사 학습에 대해 관심”(3)을 갖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으며 주체적인 학습을 통해 “자

39) 이것은 1993년 10월4일(월), 2학년4반 51명의 학생을 상대로 향토사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자유기술형식으로 보고하게 한 결과이다. 보고서에 기록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영역의 전체 빈도를 누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 인원수와는 관계가 없다.

신감”(3)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것을 볼때 학생들은 향토사 학습을 통해 향토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협력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가장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학습 상황을 살펴보면 시청각 토의학습에서는 1학년도 2학년과 똑같이 수준높은 수업을 진행시킬수 있었다. 학생들은 생활소도구를 수집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예상외로 많은 물건을 수집되었는데 단지 한 학급당 15명 정도의 토의 참여가 아쉬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회과에서 토의학습의 회수가 거듭될수록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된다.

사료구안학습에서 연대표제작은 충분한 시간과 사료의 제시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그리고 전체사학습과의 관련속에서 향토의 연대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에 학생들이 통사학습을 해본 뒤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1학년 학생들은 무리한 작업이라 하겠다.

방학날을 맞아 무대에 올린 극화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즐겨 참여한 가장 효과를 본 학습이었다. 준비기간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교사 혼자서 여러 반을 모두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지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학생들은 대본과 연출, 무대장치, 의상 등 제반사항을 모두 준비하였다. 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협동의 계기가 되었다.

1,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조사학습은 주제를 정하고 조사방법 등 계획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계획단계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과 수시로 접촉, 지도하여 조사학습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자유연구학습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현장학습은 향토사학습에서 꼭 필요한 학습이다. 현장학습의 일정과 코스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미리 답사하는 교사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학습은 사실상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소풍 등의 행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향토사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향토사학습은 종래의 강의식학습, 전체학습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자료가 요구된다. 즉, 교사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선행

되어야 할 문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과 향토사학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학습을 행하면서 본인은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강의식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강의식수업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훌륭한 교사란 학생들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배려를 아끼지 않는 교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第 IV 章 結 論

향토사학습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우선 학습활동이 학생중심이었다는 점에서도 이유하고 향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도 기인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학습활동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학습활동의 성과로서 새로운 학습의욕을 기르고 또한 기반이 된다. 제주도 향토사학습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2학년 4반 고미정 학생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 참고 가능하다.

「오늘 향토사수업을 통해 이게 바로 산교육임을 알수 있었다. 각 조원이 자료를 모아 향토지를 꾸민 일이며 기후에 대해 조사한 일, 이 모두가 '스스로'라는 명분아래 행해진 것들이었으므로 선생님이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론으로 주입식 공부를 했던 것보다 더 잘 알수 있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일반수업에서 별로 못해봤던 협동심을 조원끼리 발휘해서 만들었던 향토지는 우리 제주의 향취를 물씬 풍기게 했고 제주에 대한 나의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장기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이 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소집단 단위로 전개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향토사학습의 목표가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의 유발만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적 관점에서 조상들이 향토의 발전에 어떻게 노력하여 왔으며 향토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점은 향토사학습의 진행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의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차원에서는 국사과에서 분산적 접근방식으로 향토사학습이 권장되고는 있으나 그 실천이 미흡하고 따라서 효과적인 향토사학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간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주제적 접근에 의해서도 학습내용이 조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향토사학습 시간이 할당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향토사 교재가 갖고있는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제적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사 일개인에 의해 구안되는 향토사학습 보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료교사들과의 연대에 의해 적어도 1회에 2시간 정도의 배당으로 학기당 2회 정도 실시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강의식 수업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해보으로써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활동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고, 해보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받게 되었다. 따라서 구안학습이나 질의응답 등을 취한 발표학습, 어떤 사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학습방법 등을 조화시켜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학습시키는 공부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장답사나 견학은 향토사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방법이다.

향토사학습의 진행은 책을 읽는 일에서 부터 소풍에 까지 혹은 토의에서 연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야 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전개함으로써 향토사학습을 더욱 매력있고 흥미넘치는 학습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토의식은 향토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향토사에 대한 인식으로, 또한 향토이해 역시 향토에 대한 사고와 함께 향토사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향토사학습의 출발은 향토에 관심을 가지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함이 물론이다.

사실 향토사학습의 방법은 절대적인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사의 주관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선행의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더할 때 보다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방법의 개선은 현장교사들의 의욕적이고도 성의있는 노력과 역사교육 연구가들의 이론적인 연구가 조화있게 맺어질때 더욱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사학습은 애향심의 고취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편협한 지역감정으로 발전될 소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향토사의 내용이나 학습은 궁극적으로 민족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절차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參考文獻

『저 서』

-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 교육부,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시인쇄공업, 1988.
-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6차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중학교 사회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들, 1986.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김학수, 『현대교수-학습론』, 교육과학사, 1990.
- 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1992.
-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 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 1, 2, 푸른나무, 1990. 1991.
- 이성호, 『교수방법의 탐구』, 양서원, 1993.
- 이영덕, 『교육의 과정』, 배영사, 1977, p. 252.
- 이원순외,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0.
- 제주대학교박물관, 『용담동고분』, 경신인쇄사, 1989.
- _____, 『박물관도록』, 경신인쇄사, 1989.
- _____, 『제주의 상고문화』, 경신인쇄사, 1993.
- 제주도, 『제주도지』, 경신인쇄사, 1993.
- 제주도교육연구원, 『사회과향토교육자료(중학교용)』, 춘추문화사, 1985.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신일인쇄사, 1976.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 1, 2호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1, 2, 3집, 1984, 1985, 1986.
 탐라문화총서 3, 『탐라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 4, 『탐라지초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 5, 『탐라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1989.

『논 문』

김연성, 「향토사의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중학교 국사과
 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연구와 향토교육을 위하여」, 『역사교육』2, 푸른나
 무, 1991.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長征』, 제2집, 제주4·3연구소, 1990.
 류순룡, 「향토사료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의 함양」, 한국교총연구논문, 1991.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
 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4.
 송춘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 14
 합집, 1990.
 ———,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사료활용 방안」, 『이원순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6.
 오규환, 「지방사연구: 그 이론과 실제」, 『대구사학』, 제30집, 대구사학회, 1980.
 이성세, 「향토사료의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의 함양」, 『대구교육』5, 1984.
 임종선, 「향토사 조사활동을 통한 애향심 함양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회
 현장연구논문』, 1981.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주명철,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한국사시민강좌』 8집, 일조각, 1991.

한경자, 김한중, 「역사와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기본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89.

『외 서』

小關洋治編, 『歴史上の人物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4』, 明治圖書, 1990.

_____, 『生活に根ざした文化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5』, 明治圖書, 1990.

_____, 『世界史的背景を踏まえた學習 -古代 中世-』,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1』, 明治圖書, 1990.

_____, 『身近な地域の歴史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ワード 3』, 明治圖書, 1990.

佐島群巳外 3名, 『地域を扱う學習の方法と授業』, 教育出版, 1985.

條原昭雄外 3名, 『個に應じた社會科の授業展開』, 明治圖書, 1987.

H.P.R.Finberg, 'Local History', in Finberg and Skipp (ed.), *Local History : Objective and Pursuit* : David & Charles, 1967.

Richard, I., Arends, *Learning to Teach*, New York : Random House, 1988.

Douch, R., *Local History and the Teacher*,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1.

Ballard, M. (ed.), *New Movements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History*, London : Indiana Univ. Press, 1984 .

ABSTRACT

The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 Centering on the Che-ju Do District -

Koh, Hyo-Suk

Major in History Teaching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Gu)

In recent years, local history learning has become an important field of learning because of a growing interest in history education. Local history learning means that in the methodical aspect learners themselves carry out the process of inquiries into history within the level of their ability and in the content respect learners understand the stream of national history through perceiving a local history.

In order for local history learning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and instruction methods. So, this study aims to build, firstly the examination has been made into the content of a local history learning in the textbook now in use. And then selecting and organizing of the content in Che-Ju history learning has been made by both thematic and diverse approach. The result is the following : 1) the history

of Che-Ju island, 2) the relics of Yong-Dam Dong belong to prehistoric times, 3) Che-Ju islanders' daily implements, 4) women divers' struggle in Se-Wha Li, 5) Che-Ju islanders' Person, 6) the relics of O-Hyun-Dan.

Making use of various learning methods based on the model of seven-graded instruction process in local history learning. Students have learned the content selected and organ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matic approach. Especially, the students 1) have learned the history of Che-Ju island through the project method, making use of historical records; and 2) the Che-Ju islanders' daily implements through the discussion method, looking at audio-visual materials; and Women Divers' Struggle in Se-Wha Li by use of role play based on the historical documents ; and the relics of Che-Ju Do through the locale learning.

Such learning activities have proved to be efficient as means that incite students' interest in local history learning. But, for local history learning to be more effective the teacher should do various teaching activities in collaboration with her colleagues as well as localize the curriculum. Also, efficient and lasting studies on the learning method should be conduct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December, 1993.